
I. 서론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과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가 보험규제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2007년 글로벌금융 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철학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관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데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관점이 금융규제당국자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보다는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금융규제의 틀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철학의 변화는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개별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AIG 보험그룹, ING 금융그룹 등 보험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복합그룹의 붕괴위기 여파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증폭되면서 보험을 바라보는 규제당국자들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시스템위험 관련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보험권의 시스템위험 유발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AIG 그룹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슈를 국내 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국내 보험회사관련 실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지정 논의는 자료가 허용된 범위이내에서 이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심의 입장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논의하는 선행연구는 많지만 보험과 금융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The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2011)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원인과 처방책을 제시하였다.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보험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IAIS 2010 & 2011).¹⁾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권의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SIFI)을 지정할 경우 보험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The Geneva Association 2011).²⁾ 지난 금융위기 시 보험과 금융권역별간 시스템위험이 실증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였다(Billo, M etc. 2010). 국내문헌으로는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의 규모 및 대체가능성,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스템위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있다(이석호 2011). 그러나 한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보증보험활동이 시스템위험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IAIS 2011).

한편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AIG그룹에 대한 사례연구, 보험사업모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상 중요 보험기관의 식별 기준안 제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한 시스템위험 평가, 마지막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글로벌 또는 국가별 SIFI 적용기준안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IG그룹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비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AIG그룹의 생명보험회사 자회사의 증권대차거래가 AIG 그룹 실패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어떻게 증권대차거래가 실패를 유발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둘째, 보험사업모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전통영업활동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SIFI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³⁾ 현재 규모, 상호연계성, 해외연계성, 그리고 비전통 영업활동 등의 시스템위험기준이 이미 제시되고 있지만 동 기준을 활용하여 어떻게 보험권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하는

1) 국제보험감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

2)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해당되는 금융기업으로 현재 국제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지정기준을 논의하는 중이다.

3) 제3장과 4장에서 비전통적인 영업활동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논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개념만 소개하고자 한다.

가에 대한 방식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⁴⁾. 비전통영업활동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수행하면서 전통적인 보험활동과 자본시장활동이 결합된 보험활동을 말하거나 비보험영업활동을 의미한다. 비전통 영업활동에는 금융보증활동과 보증옵션이 내재된 보험상품,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비 전통영업활동은 자본시장활동에 해당되어 전통적인 보험활동에 비해 시스템위험의 유발요인이 크므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대해 시스템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시스템위험 유발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내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보험사업모형을 축으로 글로벌 영업보다는 국내 위주의 보험영업활동, 그룹보다는 단일법인체제의 조직구조, 엄격한 권역별 금융규제, 낮은 금융연계성을 갖는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발생 이전에는 국내 보험회사가 회사채보증보험을 취급한 관계로 시스템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보증보험이 부실함에 따라 동 회사채를 보유하였던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위험이 존재하였다(외환위기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회사채보증보험인가를 정부에게 반납하였고 현재 한국 보증보험회사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넷째,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글로벌(G) 또는 국가별(N) SIFI 적용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통적인 영업활동의 규모가 낮아 국내 보험회사가 글로벌(G) SIFI에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국내보험회사가 국내 영업활동과 전통적인 보험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타 금융권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가 글로벌(G) SIFI의 대상이 아닐 수는 있어도 국가별(N) SIFI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명확한 지정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조만간 N-SIFI 지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

4) 이하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SIFI로 통칭한다.

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체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보험과 시스템안정성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제Ⅳ장에서는 거대 금융복합그룹인 AIG의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제Ⅴ장과 Ⅵ장에서는 시스템위험 및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지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제Ⅶ장에서는 금융규제체제 변화의 시사점을,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